

# 또 다시 면피용 육성카드... KIA, 돌고돌아 제자리

### 울 스토브리그 화두는 육성...왕조재전 '팀 2020비전' 승계 실패 선수 출신 조계현 단장 부임 후 선수단·프런트 내부 소통 문제 심화 단장 주도 선수 육성 성과 못내고 올 시즌 트레이드 효과도 미미

'육성'이 만능 카드인가?  
KIA 타이거즈의 스토브리그 화두는 '육성'이다. 조계현 단장의 지휘로 화제의 코치진 개편이 단행됐고, 이범호 총괄코치라는 파격 인사가 이뤄졌다.  
그러면서 KIA는 다시 육성을 말하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팬들의 시선은 굵지 않다. 방향 잃은 구단의 변명이라는 것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육성은 오랜 시간 KIA의 고민이자 숙제였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선수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카드로도 쓰여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첫 선수출신 단장이 이끈 지난 3년의 성과를 봐도 책임회피에 불과하다.  
해태 시절의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왕조재전에 실패한 KIA는 2015년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허영택 단장의 주도로 중장기 발전 4대 전략을 준비해 'TEAM 2020 비전'을 선포했다. 어느 한쪽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단을 운영하면서 명문 구단을 만들겠다는 의지였다.  
당시 KIA는 ▲Tomorrow(미래 성장 동력 창출) ▲Excellence(고급 행복 구현) ▲Ability(최고의 경기력 실현) ▲Management(구단 경영 능력 강화)를 언급하면서 조직의 변화를 꾀했다.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100만 관중 돌파 ▲20% 이상의 구단 가치 상승 ▲3년 이상의 포스트시즌 진출 ▲문화를 통한 야구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구원원의 의식 강화 등을 이야기했다.  
처음으로 구단이 비전을 제시하고 긴 안목에서 운영한 덕분에 결과가 이어졌다.  
허영택 단장은 김선빈과 안지홍의 제대에 맞춰

전략적으로 최형우를 영입했다. 또 해외 진출 대신 KBO리그로 선화한 양현종까지 단년계약 방식으로 붙잡으면서 2017년 우승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시즌 중에는 김기태 감독과의 환상적인 호흡으로 이명기-김민식을 트레이드하면서 우승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이해 KIA는 우리나라 제2 도시 부산에 이어 비수도권 구단 사상 두 번째로 100만 관중 목표를 달성했다. 147만 광주의 놀라운 100만 관중기록이었다. 광주를 웃게 했던 2017년, 허영택 단장은 우승 공로를 인정받아 대표이사로 승진했다.  
그리고 그는 대표이사로 2018시즌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경험하면서, 3회 이상의 포스트시즌 진출이라는 목표를 이루고 2019시즌 초반 팀을 떠났다.  
'TEAM 2020 비전'을 내세운 KIA가 명문 구단으로 도약하는 것 같았지만, 지난 2년 다시 뒷걸음질 쳤다.  
선수 출신 단장 부임 이후 오히려 선수단 내부-선수단과 프런트-프런트와 프런트 사이 소통 문제가

노출됐고, 구단의 방향도 오락가락했다. 결국에는 다시 육성으로 회귀하면서 실패를 자인한 셈이 됐다.  
KIA는 올 시즌 구단 사상 첫 외국인 감독 체제를 도입했다. 빅리그에서도 소문난 스타 출신 지도자를 영입했고, 윌리엄스 감독은 '성적'을 이야기했다. 조계현 단장도 성적에 방점을 두고 트레이드와 선수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결과는 외국인 감독 첫째 첫 포스트시즌 실패이자 2년 연속 포스트시즌 관망이다.  
기대했던 성적을 내지 못하자 슬그머니 방향이 육성으로 바뀌었다. 앞서 구단의 방향이 주기적으로 육성으로 회귀하면서 전면에 내세운 감독들만 독배를 들었다.  
육성은 구단의 가장 큰 역할이자, 힘이다. 문제는 KIA에서는 방향 없이 실패의 책임을 돌리는 방식으로만 육성 카드를 사용해왔는데 있다.  
KIA의 앞선 육성 전략도 실패했다.  
육성 강화를 외치며 신설했던 퓨처스 아카데미가 소리소문없이 사라졌다. 지난 시즌이 끝난 뒤에는 프런트 개편을 하면서 육성총괄 파트를 신설하기도

했다. 육성을 강조하는 조계현 단장 역시 육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왔다.  
지난해 신입 입단식날 일부 취재진 앞에서 '단장 픽' 선수들을 소개하기도 했던 조계현 단장은 직접 현장까지 가서 이들을 개인 지도하기도 했다. 당연히 선수들 사이에서는 불멘소리가 나왔다.  
구단 주도의 트레이드도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외국인 감독, 그것도 KBO리그 첫해를 보내는 사령탑을 대신해 조계현 단장이 트레이드 전면에 나섰다지만 7.5경기 차로 5강 싸움에서 밀렸다.  
구단 주도의 잇단 외부 영입에 육성의 중요한 요소인 경쟁은 오히려 약화했고, 교통정리라는 속제가 남았다.  
반대로 '우승'이라는 목표에 마음 급했던 NC입장에서는 수월했던 트레이드로 목표지점까지 무사히 끝냈다.  
KIA는 돌고 돌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결과 없이 시간과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 실패의 책임 규명, 확실한 방향 설정 없이는 KIA의 미래와 팬심도 잃게 될 것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나달 '세계 톱10 장기집권' 기록 경신

### 지미 코너스 789주 기록 깨고 790주 기록...15년간 성적 유지

라파엘 나달(2위·스페인)이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단식 세계 랭킹에서 790주 연속 10위 이상을 유지하는 기록을 세웠다.  
ATP 투어는 10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나달이 2005년 4월 25일부터 790주 연속 세계 랭킹



10위 이내를 유지했다"며 "이는 지미 코너스(은퇴·미국)가 보유했던 789주 연속 세계 랭킹 10위 이내 기록을 뛰어넘은 것"이라고 밝혔다.  
코너스는 1973년 8월부터 1988년 9월까지 역사 약 15년 정도 세계 랭킹 10위 이내에 한 번도 밀려나지 않았다.  
다만 코너스가 맨 처음 세계 10위 안에 진입했던 1973년 8월 23일 자 랭킹은 바로 ATP 단식 세계 랭킹이 제정된 시기였다.  
코너스로서는 1973년 8월 이전에는 세계 10위 안에 들고 싶어도 랭킹 자체가 없었던 셈이다.  
이 부문 3위 기록은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4위·스위스)가 갖고 있다.  
페더러는 2002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734주 연속 세계 10위권을 지켰다.  
현재 세계 랭킹 1위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는 2007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555주 연속 세계 10위권에 머문 것이 기록이다. 전체로 따지면 6위에 해당한다.  
연속이 아닌 통산을 기준으로 하면 페더러가 921주간 세계 랭킹 10위 안에 이름을 올려 이 부문 1위다.  
코너스가 816주, 나달 790주, 앤드리 애거시(은퇴·미국) 747주 순이다. /연합뉴스

## '단풍 마스터스' 우즈, 그린재킷 또 입을까



12일 제84회 마스터스 대회 개막에 앞서 타이거 우즈가 10일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연습라운딩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만화로 보는 광주 FC 10년史

### 창단 과정 등 담은 '우리는 광주 FC' 매주 화·목 공식 SNS에 공개

프로축구 광주FC의 10년을 담은 기념 만화가 제작됐다.  
광주는 10일 "구단 태동에서부터 창단 과정, 지난 10년 역사와 추억을 담은 만화 '우리는 광주 FC'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창단 10주년을 기념한 이번 만화는 총 12화로 구성되어 광주 마스코트인 화니와 보니의 대화를 나레이션으로 해, 10년사의 굵직한 사건과 인물들을 되짚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창단 과정을 시작으로 첫 강등의 아픔, 그리고 승격의 기쁨, 무패 질주 속 이룬 K리그 우승 등 구단 최초·최고 순간을 담았다.  
오는 12일 프롤로그를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네이버 포스트와 TV 등 광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우리는 광주FC'는 애니메이션, 웹툰, 만화책 등 총 3가지 버전으로 팬들을 만나게 된다.  
12월에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웹툰을 팬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  
100페이지 분량의 만화책으로도 제작된다. 광주는 팬들에게 '특별한 만화책'을 선물하는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광주 관계자는 "만화 '우리는 광주FC'는 구단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 10년간의 추억을 담았다. 다사다난했던 10년이기에 모두를 담아내지는 못했지만, 지난 10년을 함께하지 못했던 팬들이 흥미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2020시즌은 광주에게 가장 뜨거운 해다. 1부리그로 승격해 창단 10주년을 맞았고, 새로운 전용구장에서 구단 역사상 첫 파이널A에 진출했다.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팬들과 다양한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는 광주FC'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후원으로 제작됐다.  
/김여울 기자 wool@



### 내일 개막...디셈보 메이저 2연승 관심

봄이 아닌 늦가을에 펼쳐지는 골프 '명인 열전' 마스터스 토너먼트가 12일(현지시간) 막을 올린다.  
12일부터 나흘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파72·7475야드)에서 열리는 제84회 마스터스(총상금 1150만 달러)는 9월 US오픈에 이어 2020-2021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다.  
애초 2019-2020시즌인 올해 4월 9일 개막 예정이었던 마스터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7개월 미뤄졌다.  
첫해인 1934년 3월 말에 열린 것을 제외하면 4월을 벗어난 적이 없던 마스터스가 처음으로 11월에 개최되는 것이다.  
대회가 열리는 오거스타 내셔널은 평균 기온이 4월의 최고 25도, 최저 8.8도보다 다소 떨어지고, '명물'인 철쭉도 흔히 볼 수 없다.  
해가 짧아지다 보니 3명이 한 조로 1번 홀에서 차례로 시작하던 예년과 달리 1번 홀과 10번 홀에서

오전 오후 조로 경기하는 것 등도 변화다.  
지난해 4월 오거스타에서 '황제의 부활'을 알린 타이거 우즈(미국)에게도 평소 같지 않은 마스터스다.  
특히 우즈가 올해도 정상에 오르면 마스터스 최초의 '두 차례 2년 연속 우승'을 일구는 선수로 기록된다.  
역대 마스터스에서 한 선수가 타이틀 방어에 성공한 사례는 3차례 있었다.  
1965-1966년의 잭 니클라우스(미국), 1989-1990년의 닉 팔도(잉글랜드), 그리고 2001-2002년의 우즈로, 주인공이 모두 달랐다.  
이번 대회에선 우즈의 타이틀 방어만큼이나 '초장타'로 무장한 브라이언 디셈보(미국)의 메이저 대회 2연승 여부가 관심을 끈다.  
디셈보는 올해 체중을 20kg 이상 불리고 거리를 늘려 골프계에 '장타 전쟁'을 불러일으킨 선두주자다. 그는 난코스인 윈드풋 골프클럽에서 열린 US오픈을 제패하며 '괴짜'를 넘어선 최정상급 골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마스터스가 계절의 변화로 달라진 코스 특

성 등을 고려해 장타자에게 유리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디셈보의 성적은 관전 포인트다.  
최근 메이저대회 챔피언이나 '이슈 메이커'는 디셈보지만, PGA 투어 홈페이지가 꼽은 '파워 랭킹'에선 현 세계랭킹 1위인 더스틴 존슨(미국)이 1위에 올랐다.  
존슨은 US오픈 이후 코로나19에 걸려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다 지난주 휴스턴오픈을 통해 실전에 복귀해 '마스터스 전초전'을 마쳤다.  
US오픈에서 공동 6위에 올랐던 그는 휴스턴오픈 첫날엔 공동 63위에 그쳤으나 2~4라운드에서는 60대 타수를 유지하며 공동 2위에 올라 샷 감각을 조율했다. 새 시즌 개막 이후 대회 출전 수도 적고 코로나19도 겪었지만, 어느덧 기량을 회복한 모습으로 우승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의 '커리어 그랜드 슬램' 도전도 이어진다.  
2011년 US오픈, 2012년 PGA 챔피언십, 2014년 디오픈과 PGA 챔피언십을 제패한 그는 마스터스에는 2009년부터 11차례 출전했으나 2015년 4위가 최고 성적이었다.  
이들을 포함해 올해 마스터스에선 92명이 경쟁을 펼친다. /연합뉴스

